

기독교 종파

가톨릭에서 가장 먼저 분리된 교단이 루터교다.

루터교는 성경 이외에 다른 어떤 권위도 두지 않는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라는 3원리는 루터교를 떠받치는 기둥이다.

때문에 평신도들은 성단에 올라와 설교도 하고 성찬을 목사와 함께 베풀기도 한다.

장로교는 루터교와 마찬가지로 목사와 장로 등 직분자가 있지만 회중을 교회의 중심으로 삼는다. 이는 만인제사장설로 발전한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미 창세 이전에 예정돼 있다는 예정론을 신봉한다.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는 로마교황청의 간섭에서 자유로워지려는 세속 권력의 의지에 의해 분리됐다.

때문에 교리와 제도는 가톨릭과 거의 비슷하다.

신부의 결혼이 허용된다는 차이 정도만 있다.

감리교는 성공회에서 분리됐지만 교리나 제도에선 별 차이가 없다. 중앙집권적 감독제나 성직자 파송제 등은 성공회와 닮았다. 다만 실천적 측면에서 감리교는 개인과 사회의 성화를 함께 강조한다. 감리교는 성경과 교회의 전통, 이성 그리고 경험을 강조해, 신구교 교리를 잘 접목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근대로 넘어오면서 감리교는 성경보다는 이성, 개인보다는 사회에 비중을 두는 경향을 띠게 된다.

이런 ‘세속화’에 반발해 나온 것이 성결교다.

성결교는 개인의 성화와 구원을 강조한다.

개신교 가운데 조직보다는

개인의 자발적 믿음을 가장 강조하는 교단이 **침례교**다.

오순절교회는 20세기 초 성령운동 차원에서 탄생했다.

하나님의 시대, 예수와 제자들의 시대를 거쳐,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강조한다.